

안청시의 『비살생 정치학과 지구 평화운동』을 읽고

글렌 페이지 교수의 학문세계

정지웅 |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상임운영위원

이 책은 하와이 대학에서 글렌 페이지(Glenn D. Paige) 교수에게 사사한 안창시 교수를 비롯한 후학들이 그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의 학문세계를 재평가하고 알리고자 기획하였다. 우선 우리는 글렌 페이지의 학문세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필연적 연관성과 한국에 대한 애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학문적 여정과 전환점은 모두 한국적 특수상황을 정류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학 연구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학자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페이지 교수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 정책결정이론을 적용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추억 때문에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고문교수로 부임했다.¹ 그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의 남한 박정희와 북한 김일성의 역할에서 영감을 얻어 그의 정치리더십의 요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남북한의 강압정치를 보면서 비폭력, 비살생의 정치학 연구로 나아가게 된다.

현실을 분석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인류 사회의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학문적 자세는 정치학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비폭력이란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사회과학자는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학자는 “자신의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의미에 대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1. 그러나 5·16 쿠데타가 나자 뉴욕 타임즈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 강제 출국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2. 그는 전통주의자들과 행태주의자들 논쟁을 정리하면서 양자 모두 ‘결정론적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경험으로부터 페이지 교수는 ‘정치행동은 ‘원인적(causal)’이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relatively autonomous)’ 사회적 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정치에 대한 재발견’을 하였다고 한다. 정치지도자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지는 창조적 잠재력과 정치리더십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한다. 페이지 교수는 정치리더십 행동은 성격, 역할, 조직, 가치관, 임무, 환경 등 여섯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치 행위의 18가지 차원들—폭력적 강제, 비폭력적 영향, 통제, 반응성, 갈등, 타협, 합의,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분배, 상호연결, 공간, 시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성, 창조성, 도덕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정운재, 2004: 98, 103-104).
3. 그는 1968년의 저서 *The Korean Decision*에서는 ‘폭력을 용인’하는 입장이었지만, 10년 후의 자평인 1977년의 “On Values and Science”에서는 ‘폭력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가치관의 대전환을 보여 준다.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행태주의적 분석 혹은 객관적 분석이라는 구호 아래 경시되거나 무시되었던 정치학자 자신의 가치관과 그것에 입각한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비살생 정치학 주장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고 전쟁과 남북분단, 쿠데타 등으로 점철된 한국적 상황에 몸소 부딪치면서 그가 직접 목도한 현실의 모순으로부터 탄생한 치열한 정신의 산물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폭력 수용에서 비폭력으로의 사고전환’이 단순한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완전한 평화상태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세계평화와 비살생을, 가능성 있는 미래로 끌어들이려는 그의 노력은 오늘날 기존 정치학에 지친 학자들에게 분명 신선함을 던져 준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문에서 한배호 교수는 페이지 교수와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면서 그의 행동하는 학자적 자세, 독립적인 학자적 자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다. 또한 그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은 모두 한국, 한국인과 떼어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장에서 안청시·손봉숙 교수는 ‘한국전쟁론’에서 ‘비살생 지구정치학’⁴에 까지 이르는 페이지의 학문적 여정과 전환, 그리고 평화운동, 한국사랑까지를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가치관 전환을 루소(J.J. Rousseau)의 가치전이 체험과 비교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 장에서는 페이지 교수의 비살생 정치학에의 탐구와 지구 평화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3장에서 정대화 교수는 페이지 교수의 한국 전쟁에 관한 연구를 세 부분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전에 관하여, 페이지 교수와 자신과의 의견 차이를 정

4. 하와이 대학의 페이지 교수가 주창한 것으로 정치학은 인류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학문이며 이를 위해 첫째, 규범적 전환, 둘째, 경험적 전환, 셋째, 이론적 전환, 넷째, 제도적 전환, 다섯째, 교육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강압정치로부터 새로운 비살생 정치학의 전율을 얻었다고 손봉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리하고 있다. 정교수는 페이지 교수의 ‘비폭력적’ 대안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들에게 ‘비폭력적 대안’을 적용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또한 미-서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이르는 미국의 ‘기만과 조작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4장에서 정윤재 교수는 정치지도자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지는 창조적 잠재력과 정치리더십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페이지 교수는 정치리더십 행동은 성격, 역할, 조직, 가치관, 임무, 환경 등 여섯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치 행위의 18가지 차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창조적인 지적(intellectual) 리더십’으로서 페이지의 연구는 21세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지식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에서 이재봉 교수는 비폭력정치론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기술하면서, 페이지가 인간의 본성, 종교적·과학적 근원, 그리고 사례 등을 통해 주장한 비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페이지 교수가 말하는 폭력은 살생이며, 그가 추구하는 비폭력은 살생이 없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한다. 이교수는 또한 한반도의 비폭력적 통일을 위해 페이지가 제시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6장에서는 태국의 사타이난드 차이왓 교수가 정치학 지식과 비살생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살생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기에 신이 부여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곧 신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라고 말한다. 따라서 적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적의(敵愾)의 결과로 규정한다. 그는 페이지가 용감하게도 학문의 기반이 되고 있는 토대를 의문시함으로써 학문 내부의 질병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또한

-
5. 정교수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대만 수호가 관련이 있다고 보았지만 페이지 교수는 이러한 관련성을 부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페이지가 한국전을 하나의 기습전으로 보았던 것,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에 애치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한 것 등에 대해 정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비폭력적 조치들이 국가와 공무원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7장에서 일본의 사카이 히데카즈 교수는 먼저 안전보장체제에 있어서 미국중심주의로부터 다원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비폭력적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비폭력 전통을 소개하고, 셋째, 페이지의 이념을 구현한 일본 평화비폭력운동의 리더인 불교지도자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의 사상과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8장에서 강종일 교수는 페이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언급했던 중립화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첫째,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라는 것, 둘째, 주변 4강과 차이가 큰 한반도의 국력, 셋째,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넷째,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어 기존의 한반도 영세중립주장들과 그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끝으로 영세중립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며 남북이 자주정신으로 강하게 주장한다면 중립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 김수민 교수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새로운 접근인 평화문화의 창출을 논하고 있다. 김교수는 평화체제의 구축, 경제공동체 형성, 민주주의 확산뿐만 아니라 평화교육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평화문화는 개인, 집단, 국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고 방지하는 가치, 태도,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하면서 폭력의 문화를 비폭력의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10장에서는 페이지 교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직업상 살생이 전문인 세 명의 미국 장군들,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군대는 바로 인류의 자살행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군비는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다), 리 버틀러 장군(Lee Butler,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며, 군사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무기이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비살생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지 교수는 한국전쟁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비살생’으로, 비살생 한국은 가능하며, 나아가 모든 인류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외치면서 한국인들이 그들의 값진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으로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비살생으로의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그의 사상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가 단지 현실 분석과 예측으로서의 정치학에, 그리고 투쟁과 권력관계를 서술해 내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도구로서의 정치학에 대한 연구에 너무나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치학은 의학이나 약학처럼 인간 사회의 병리를 연구하고 건강하게 고치는 역할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듯하다.

그가 한국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비인간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뒤, 영혼으로부터 외치는 비살생 정치학은 하나의 종교적 감화와 같은 전율을 우리에게 준다. 이는 마치 처음에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가 예수의 출현으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기독교가 되고, 마침내 세계종교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만인의 공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비폭력, 비살생, 바야흐로 한국으로부터 지구적 차원의 정치학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정치학을 그가 구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오랜 연구와 고민의 결과로 ‘No More Killing’이란 단어가 어디로부터 섬광처럼 가슴에 새겨지는 깊은 가치관의 전이를 그가 경험한 것이다. 이때부터 마치 불교의 ‘깨침’⁶처럼 다가온 ‘비살생’이라는 화두는 그의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에 기인한 영감의 작용이 비단 종교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학문적 영역에서도 진정성을 가지

6. ‘깨달음’은 지적(intellectual) 세계에서 종래에 몰랐던 것을 이제는 좀 알았다는 정도의 말인데, ‘깨침’은 지적(intellectual) 세계 자체가 깨어지는 것으로 ‘깨달음’과 ‘깨침’은 다르다(박성배, 2002: 8).

고 깊이 연구하고 또 되새기다가 보면 마치 종교적 천재들처럼 어느 순간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를 그의 사례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이처럼 종교적이었으나,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방식은 과학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글렌 페이지의 정치학에 대한 관심은 평화주의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지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실증 증거와 추론에 근거한 경험과학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비록 실증과 경험과학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불교로부터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학문과 종교의 자연스럽고도 긍정적인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 공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손뼉을 치지 않고 손을 위로 흔든다는 글렌 페이지의 행위는,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 빗자루로 길을 쓸면서 걸어가는 수도승을 연상시킨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행동적 일치를 위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용맹정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삶과 학문적 주장을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치학은 마치 종교처럼 인류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학문이며, 비살생 세계는 실현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그렇고, 둘째, 평화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군대 폐지 등 비폭력 사회의 건설을 위한 운동들이 국민국가로 이루어진 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셋째, 과연 타고난 인간의 호전성과 잔인함을 교육으로 완전히 순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다.

지난 해 기독교 평화운동가 진 스톨즈퍼스(Gene Stolfus)가 내한하여 강연할 때, 필자는 위의 고민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것은 “한국적 대치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화라는 모토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국가 상황에서, 병역 거부 운동과 군대폐지 운동이 어떠한 현실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군대제도는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닌데 왜 인류는 군대 없는 국가를 상상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반문으로 대답을 대신

했다.

글렌 페이지 교수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평화운동의 중심부에 있다. 그는 전쟁의 원인으로 첫째, 민족 사이의 갈등, 둘째, 종교 간의 불화, 셋째, 미국의 패권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사회와 국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많은 회의를 유발시키는 그의 화두는, 그러나 자못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막스 베버(Max Weber)가 갈파한 대로 서양 정치학의 주류는 오랫동안 폭력 용인적인 전제와 접근법에 익숙해 있던 바, 글렌 페이지의 “폭력적 방법으로는 폭력을 결코 제거할 수 없으며 억제조차 할 수 없다”는 진단은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대테러 전쟁 등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함무라비 법전식 복수대응이 결코 폭력을 가리앉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⁷

이처럼 중동의 사태에서 유추해 볼 때, 전통적 정치학, 특히 신현실주의적 접근이 추구하는 방식이,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한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물론 힘에 근거한 문제해결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입장도 충분히 그 논리적 근거가 있기에 존중될 수 있겠으나, 페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폭력, 평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부여하고 있다. 즉 비록 이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근거가 약하다 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동북아 평화, 인류평화를 주장하는 정치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의 실천적 평화주의 운동이 가지는 현실성,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⁸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새로운 정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무엇인가 한 계점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른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과 방안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페이지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 강압정치로부터 비살생 정치학으로 나아갔기에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억압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그가 북한 정권의 인권문제를 외면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폭력, 비살생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치학의 출발로서의 함의는 간과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는 비폭력과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적 유산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타협하지 않고, 폭력적인 정치권력과 대치하여 사회를 평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길을 충실히 걸어왔기에 미국이나 다른 어떤 정부와도 관련을 갖지 않고 혼자서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한 매우 드문 학자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의 평화주장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패권주의와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서방세계가 그의 주장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서방세계에서도 그의 주장은 정치학의 영역에서 하나의 혁명적 도약으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분명히 정치학에 새로운 경향을 접목했음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앞으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학의 제도권 안에서도 미래사회를 위한 평화운동으로서의 정치학이, 정치학의 한 중요부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그의 정책 결정이론과 리더십 연구, 비살생 지구정치학은 모두 한국으로부터 왔으며 또 일관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기에, 통일한국을 위한 연구에도 그의 정치학이 더욱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사상과 운동은 남북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또 그는 그의 학문적 사상과 주장으로 남북한의 화합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반도의 비폭력적 통일을 위해 첫째, 군비 감축 및 민간인 군사훈련 중지, 외국군 철수와 군사동맹 폐지, 비핵화 및 중립화를 이루어야 하며, 둘째, 운송 및 통신망 연결,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 천연자원 개발, 기술 공유 및 상호교역 확대를 꾀해야 하며, 셋째, 상호체제 인정

많은 논의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그의 주장이 분명 한 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새로운 정치학의 방향에 대한 논의 그 자체까지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그의 주장이 가지는 현실적 가능성을 떠나서,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본 서평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및 평화공존, 이산가족 재회 및 각종 부문의 교류 활성화, 판문점을 통한 여행 및 공동 관광지역 개발,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비살생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고대 한민족의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생명 존중의 사상, 둘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변동을 이룩할 수 있었던 창조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정치지도력, 셋째, 창조적이고 숙련되고 근면하며 적응을 잘하는 한국인들의 능력, 넷째, 한국 사회에 폭력을 끼쳐왔지만 그래도 주변 4강 모두 비살생의 윤리를 역사 속에 지니고 있는 것, 다섯째,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이룩된 비살생에 관한 경험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비살생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원칙으로 첫째, 비살생에 관한 윤리의식 고취, 둘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 해결에 참여할 것, 셋째,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넷째, 살생 기구들이 인도주의적인 민간 차원의 일에 봉사하도록 전환하는 것, 다섯째, 비살생 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비살생을 위해 한국에서 지도자 양성기관을 창설하는 것, 둘째, 비살생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셋째, 전 세계를 비살생 지도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독특한 역할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 등을 피력하고 있다.

통일운동가,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반드시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한 한국 정치학자의 “한국의 전통에는 비폭력주의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 갔을 정도로 그는 한국의 평화적 전통을 믿고 있었고 또한 남북한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대결적 태도로부터 보다 상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의 일대 변혁을 추구해야 하며 분명 우리 사상의 맥락 속에 흐르는 평화사상으로 남북한 통일의 이념을 끌어내고 통일의 추진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글렌 페이지가 오늘 한국의 정치학자들에게 주는 숙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안청시, 2004. 『비살생 정치학과 지구 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 정운재, 2004. “글렌 페이지의 정치의 재발견과 정치리더십 연구.” 『비살생 정치학과 지구 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 박성배, 2002. 『깨침과 깨달음』. 서울: 예문서원.

